

1995년 경제전망

■ 자료제공 : 산업연구원

성 장

· 금년 8.3%, 내년 7.4%

소 비

· 증가세 점차 빨라질 전망

투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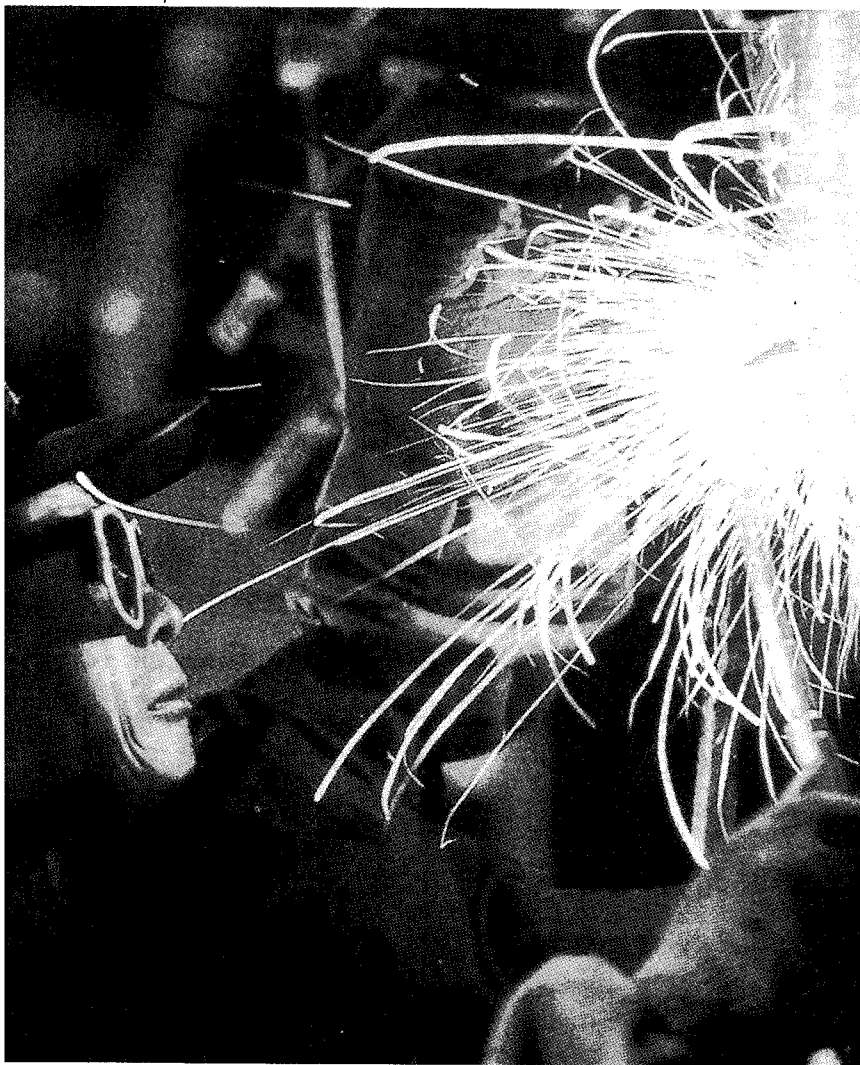
· 설비투자 둔화 속 건설투자 회복

수 출 입

· 수출호조 지속, 수입도 큰 폭 증가

국 제 수 지

· 경상수지, 금년 적자, 내년 균형



최근 국내경기는 활발한 성장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상반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비 8.5%에 이르렀고, 수출 및 내수의 호조에 힘입어 산업생산과 출하도 10% 대의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호조는 높은 가동율과 완전고용에 가까운 실업률로 이어져 일부에서는 생산능력과 노동인력의 부족이 중요한 현안문제로 되고 있다.

내년까지 경기확장 국면이어져

이러한 경기확장 국면은 기본적으로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투자는 그 속성상 증가세가 둔화되겠지만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수출이 꾸준히 호조를 지속하고 민간소비도 견실한 증가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70년대 이후 다섯번의 경기 회복기에 경기 저점에서 정점까지의 기간이 평균 31개월이었고, 이번 경기 사이클의 저점이 지난해 상반기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내년까지 전반적인 국내경기가 과열현상을 나타낼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는 있으나 과거의 경기 활황기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고,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 GNP성장률은 지난해의 5.6%에서 금년에는 8.3%, 그리고 내년에는 다소 낮아진 7.4%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불안·부문간 성장 격차가 걸림돌

향후 성장세의 지속과 관련하여 가장 큰 어려움은 물가불안의 증폭이다. 지난 8월까지 소비자물가는 이미 금년도 억제목표인 6%나 상승하였으며,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해외자본유입, 소비자물가 추세 등 앞으로 물가상승 요인도 많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경제부문간 성장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 중의 고성장은 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 그 중에서도 중화학공업의 두 자리 숫자 성장에 기인한다. 반면, 경공업부문은 금년 상반기에도 성장률이 2% 수준에 머물러 5년 이상 부진한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구조 조정의 필요성과 경기 회복기의 부문간 성장 격차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해외부문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엔화 강세와 선진국의 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수입도 급증하여 금년에는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자본유입의 증가로 인한 종합수지 흑자가 원화의 절상 압력으로 작용하여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를 저해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국내경제의 어려움에 더하여 대외 여건도 앞으로 다소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더욱 진전되었지만 엔고의 효과가 점차 줄어들어 원유를 포함한 국제원자재 가격과 국제금리도 상승하여 이번 경기회복에 큰 기여를 한 「新3低」 현상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향후 국내경제는 물가불안의 정도와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선택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불안이 증폭되어 금융긴축이 강화되면 금리 상승과 원화 절상이 뒤따르게 된다. 이는 기업투자와 수출을 저해하여 성장을 둔화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국제경쟁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공업 부문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경제전망

성장률, 금년 중 83%,
내년에는 74%

전반적인 국내경기는 내년까지 활황 국면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장률은 금년 하반기부터 다소 낮아져 연간 성장률이 지난해의 56%에서 금년에는 83%, 그리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다소 낮아진 74%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경제는 지난해 상반기 경기 저점을 통과한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회복국면을 나타내었다. 금년

국내경제 성장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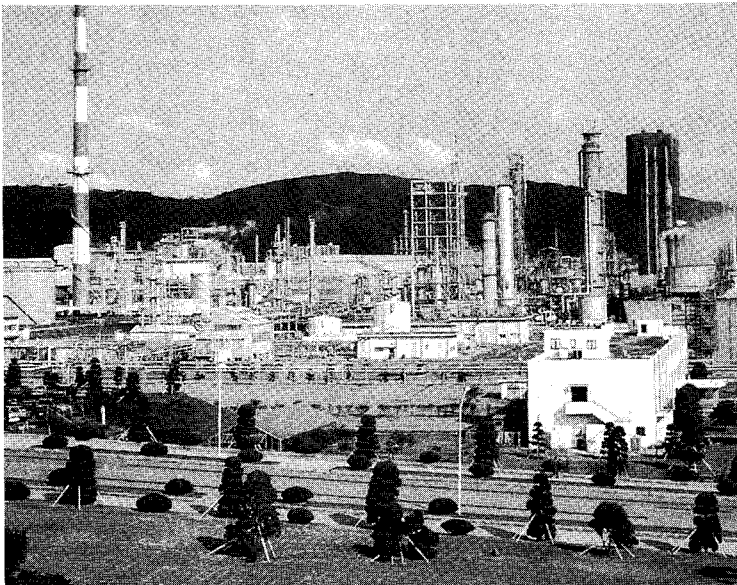
실 질 GNP 성 장 륜	1993	1994		83	1995
		上半期	下半期		
(제조업 성장률)	(5.0)	(10.0)	(9.4)	(9.7)	(8.5)
최종 소비 지출	5.3	6.7	7.4	7.1	7.3
(민간 소비)	(5.7)	(7.2)	(7.6)	(7.4)	(7.5)
총 자본 형성	0.6	18.2	11.5	14.4	7.1
(설비 투자)	(0.2)	(17.7)	(9.3)	(13.3)	(6.4)
(건설 투자)	(5.8)	(5.3)	(8.4)	(7.0)	(7.5)
재화와 용역의 수출	11.2	13.5	14.7	14.2	10.6
재화와 용역의 수입	6.7	18.0	17.2	17.6	9.6

들어서는 기업의 투자와 수출이 호

조를 지속하면서 뚜렷한 활황세를 시현, 실질 GNP성장률이 1/4분기 8.9%, 그리고 2/4분기에도 8.1%의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특히 2/4분기부터는 성장의 저변도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기업투자의 꾸준한 회복에 더하여 엔화 강세 및 선진국의 경기회복으로 수출 신장세가 가속화되고, 민간소비도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생산과 출하 역시 두 자리 숫자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제조업 가동률도 80% 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산업별로는 명암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10%를 상회하는 성장추세를 지속하고 있



올 하반기의 실질 GNP성장률은 8.1%를 기록, 금년 전체로는 8.3%의 성장률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는 성장률이 7.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는 반면 농림어업과 광업은 여전히 저성장에 머무르고 있고, 민간건설 부문도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였다. 제조업 내부에서도 경공업 부문은 3% 미만의 저성장 추세가 최근까지 이어져 산업간 경기 불균형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하반기 중에도 수출이 계속 활발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민간소비도 활기를 더해감에 따라 활발한 성장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동안 급증추세를 나타내었던 기업의 설비투자는 지난해까지의 투자부진이 보전됨에 따라 증가율이 다소 낮아져 안정적인 증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 실질 GNP성장률은 상반기의 85%보다는 다소 낮으나 여전히 높은



급증 추세를 나타내던 기업의 설비투자는 그 증가율이 다소 낮아져 안정적인 증가를 보일 것이다.

수준인 81%를 기록, 금년 전체 성장률이 8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불안이 성장세 지속에 가장 큰 변수

내년에는 성장률이 74% 내외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년까지 경기를 이끌어 온 기업의 투자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수출도 엔화 강세의 효과가 서서히 퇴조하는 가

운데 오히려 원화의 절상이 마이너스로 작용하여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들어 계속되고 있는 물가불안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성장세를 다소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물가안정을 위한 안정화 시책의 강화는 금리상승과 원화 절상으로 연결되어 투자와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러나 내년에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인 7%대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 투자와 수출이 금년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민간소비는 내년에 75%의 높은 증가 추세가 계속되어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물가안정을 위한 안정화 시책의 강화가 투자와 수출의 지속적 증가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 증가세 빨라질 전망

지난해 5%대의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 소비지출이 금년 상반기 6.7% 증가하여 증가세가 빨라진 후 금년 하반기와 내년에도 각각 7.4%, 7.3%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들어 정부소비는 4%대의 낮

증가세가 더욱 빨라졌다. 이처럼 금년 들어 민간소비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해 경기부진과 정부의 강력한 사정활동, 금융실명제 실시 등에 따라 위축된 소비심리가 금년 들어 경기회복, 사정 분위기 퇴조에 따라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루어졌던 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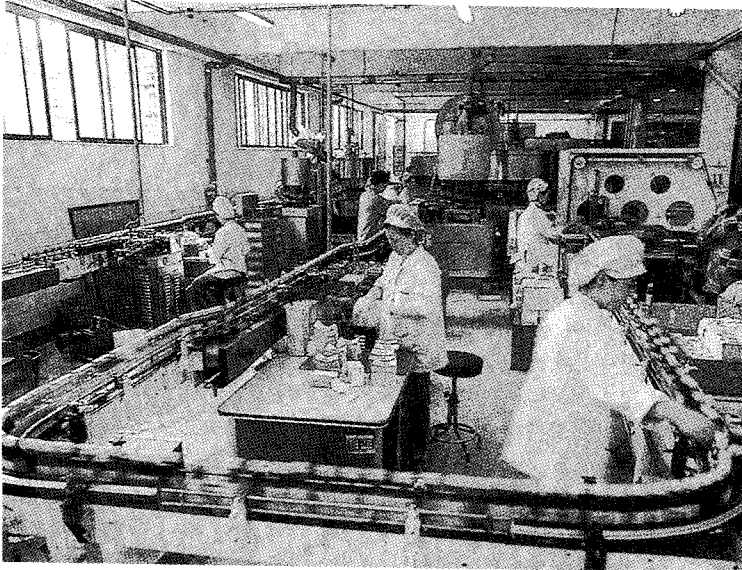
금년 1/4분기에 9.6% 증가한 데 이어 2/4분기에는 12.1%나 증가하였다.

고급 소비재의 수입도 크게 늘어

또한 서비스 지출도 오락 서비스, 해외여행 등을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여 1/4분기 7.8%, 2/4분기 7.5% 증가하여 지난해 6.1%를 크게 상회하였다. 지난해 5.5% 증가한 소비재 수입(양곡 제외)도 금년 1~7월간 22.8%나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냉장고, 세탁기, 승용차 등 고급 소비재의 수입증가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민간소비의 증가 추세는 향후 계속 이어져 금년 하반기, 내년에 각각 7.6%, 7.5%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경기호조가 지속되면서 임금 인상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주식시장도 호전되고 있어 전반적인 소비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정활동 약화와 금융실명제 정착에 따라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는 고소득층의 소비가 향후에도 높은 증가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주택건설이 호전될 것으로 보여 주택과 관련된 내구소비재의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도 크다.



민간소비의 증가추세는 계속 이어져 올 하반기 7.6%, 내년에는 7.5%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다.

은 증가에 머물고 있는 반면 민간 소비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5.7% 증가에 그쳤으나 금년 1/4분기에 6.8% 증가한 데 이어 2/4분기에는 7.6%로

용차, 개인용 컴퓨터 등 내구재 구입과 오락서비스, 해외여행 등 서비스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고급 소비재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8.5% 증가한 내구재 구입은

설비투자는 둔화되나 여전히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

금년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의 설비투자는 앞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증가 추세는 내년까지 꾸준히 이어져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제작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감소 추세를 나타내어 경기부진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에 증가추세로 반전된 이후 금년 들어서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민소득계정에서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기비)은 지난해 상반기의 -6.5%에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7.2%,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17.7%로 높아졌다.

이처럼 투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수출과 내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경기전망이 밝은데다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가시화됨으로써 기업의 투자 마인드가 뚜렷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자 분위기는 기본적으로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까지 국내경기의

확장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중화학 부문의 투자증대 필요성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년 들어 7월까지 국내 기계수주액과 기계류 수입 허가액 증가율이 각각 전년동기비 30%와 6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설비투자의 증가율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그 동안의 투자급증으로 지난 경기부진기의 투자부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투자의 경기선행성과 수출신장세의 둔화등을 감안할 때 투자 확대 자체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금년 상반기 중의 높은 증가율이 지난해 상반기의 극도로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 다소 과대 평가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공업 부문이 여전히 본격적인 회복국면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급등세의 지속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의 0.2%에서 금년에는 13.3% 내외로 높아진 후 내년에는 7%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는 사회간접자본 중심으로 증가율 높아져

한편 최근까지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건설투자는 앞으로 회복 속도가 다소 빨라져 증가율이 지난해의 5.8%에서 금년에는 7% 수준, 그리고 내년에는 7.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상반기 중 건설투자는 도로, 건설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공업용 건물 건축은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주택 및 상업용 건물 건축이 부진하여 전반적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지난해 19.3% 늘어났던 국내 건설수주는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13% 수준으로 증가율이 낮아졌으며, 건축 허가면적은 15% 이상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다만 공업용 건축 허가면적은 제조업의 활기를 반영하여 10% 내외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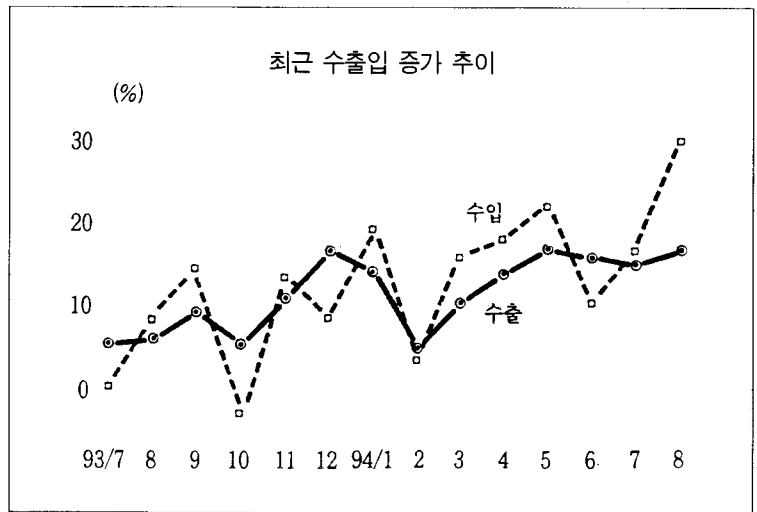
앞으로도 건설투자는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공업용 건물과 아파트 건설의 활기가 이어져 소폭이나마 증가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기 회복과 엔고로
활성화되고 있는 수출

작년 말 이후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수출은 금년들어 더욱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 상반기 중 12.6%의 신장을 기록한 데 이어 7~8월 중 일부 대기업의 노사분규에도 불구하고 상반기보다 훨씬 빠른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통관 기준으로 본 수출은 하반기에 13.6% 증가한 492억 달러를 기록하여 금년 전체로는 13.1% 증가한 9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 경기회복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수출은 두 자리 수 성장을 계속하면서 국내경기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수출 총액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수출상품의 구조도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경공업 제품에서 부품과 소재로, 단순가공 조립에서 하이테크 제품으로 수출 주력업종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금년 중 호조를 보인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반도체가 단일품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 조선도 착실한 수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후발 개도국의 성장으로 플랜트 수출을 중심으로 일류기계류도 20%



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섬유원료를 비롯한 경공업쪽의 소재 산업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철강, 유류제품의 경우 국내경기 회복에 따른 내수 확대로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했고, 경공업 제품들은 전반적으로 수출실적이 저조하였다.

내년에도 수출은 10%
증가의 호조 보일 듯

세계경기가 계속 활황세를 보이고 있으나 엔고 효력이 내년쯤이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원화절상도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은 근본적으로 선진국 경기와 가장 큰 상

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내년에도 10% 내외 신장이라는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력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금년에 8.5%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데, 내년에도 6.5% 정도로 견실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대일 수출도 금년에는 15.4%, 내년에는 12.4%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 EU로의 수출은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의 증가율이 기대된다. ASEAN, 중국시장도 20% 내외의 수출 신장률이 기대되며, 개도국 전체로는 16% 정도의 수출 증가율이 전망된다.

수출입 및 국제수지 전망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비, %

	1993	1994		1995
		上半期	下半期	
수출	822	438	492	930
(증가율)	(7.3)	(12.6)	(13.6)	(13.1)
수입	838	473	497	970
(증가율)	(2.5)	(14.5)	(16.9)	(15.8)
수출입차	-16	-35	-5	-40
무역수지	21	-16	12	-4
경상수지	5	-27	2	-25

주: 수출입은 통관 기준

수입 증가세 내년에는 둔화될 듯

국내경기가 살아나면서 금년수입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설비투자과 관련된 자본재, 부품수입이 급증하면서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세를 크게 추월하고 있는 것이다.

금년 상반기에 수입은 통관기준으로 14.5% 증가한 473억 달러를 기록했다. 7, 8월 중 수입증가세가 계속 커지고 있고, 수입승인서 발급 실적도 증가하고 있어 금년 하반기에는 수입 증가율이 16.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금년 수입은 15.8% 늘어난 9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의 대부분이 수출용이기 때문에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 수입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어 있고, 국내경기가 회복되면서 그 동안 미루어 온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급증하면서 수입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설비투자가 진정되고, 국내경기가 안정 성장 추세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에는 수입증가세가

다소 꺾여 8% 증가한 1,048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 볼 때 일반기계는 금년 전망치인 22.3%의 수입증가율이 내년에는 15%로 떨어지고, 전자부품은 22.3%에서 내년에는 12.5%로 수입증가세가 주춤할 것이다. 내수증가 때문에 철강수입이 금년에는 25%에 이르렀는데, 내년에는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 금년 25억 달러 적자, 내년에는 균형

금년 상반기에 이미 16억 달러라는 적자를 기록한 무역수지는 6월에 잠시 흑자를 보였다가 7, 8월 계속 그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4/4분기에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은 되지만 금년 1~8월의 적자를 상쇄하기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4억 달러 정도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입증가세가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반전될 것으로 전

망된다. 비록 통관기준으로 본 수출입 차는 25억 달러의 적자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나, 국제수지 기준으로 본 무역수지는 18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의 국제수지 추이를 볼 때, 무역수지는 큰 폭으로 급락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무역외수지는 만성적 적자 추이를 보이고 있다. 작년의 무역외수지가 23억 달러 적자를 기록, 모처럼 흑자를 보인 무역수지 흑자를 초과하여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뻔 하였으나, 7억 달러의 이전수지 흑자로 가까스로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는 주로 해외여행의 증가로 여행수지 적자가 계속 악화되고 있고, 기타 운수수지도 적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 기인한다. 작년보다 무역외수지 적자가 다소 확대되어 금년 경상수지는 25억 달러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입 증가세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는 경상수지도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